

광주시·전남도, 대선 후보들에 제안할 지역 공약 확정

광주, AI산업 중심 81조원 규모...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196조원 수준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공동 초광역 공약도 제시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선 공약을 확정했다.

광주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81조원의 규모의 공약을 선정했고, 전남도는 국립의대 신설을 비롯해 지역 미래 신성장의 동력이 될 국정과제가 담긴 약 196조 수준의 권의안을 수립했다.

〈관련기사 2면〉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등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광주·전남이 미래 산업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굴해 조기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전달해 선제적으로 광주·전남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오는 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전달할 광주·전남 지역 공약안을 확정, 제안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총 15개 과제 40개 사업에 대해 81조원 규모의 광주지역 공약을 제안했다.

15개 과제는 지역과제 7개(23개 사업), 초광역과제 3개(7개사업), 국가 과제 5개(10개 사업)로 구성됐다.

이중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역 7개 과제와 초광역 3개 과제로, AI·문화·서남권 시대를 구성하는 사업이 담겼다. 5개의 국가분야 과제는 5·18정신의 헌법수목 등을 비롯해 지역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AI 주도성장을 통해 'AI모네타이-The BRAIN 광주'를 조성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AX 실증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운영과 AI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과 연계한 AI생태계를 완성해 지역 AI산업이 지

역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 등에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정을 신설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안전하고 제대로된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서남권 거점 공항도시 조성에 전남과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하며,전남과 공동으로 초광역 공약도 제안했다.

전남도는 '전남 미래발전 중대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75개 과제 총 196조 8460억원 규모로 구성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 대부분은 타 시도와 비교해 비교적 미흡한 기반시설과 지역 소멸 방지대책, 신산업 육성 등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전남이 가진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산업 등 전남 발전에 발판이 될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을 뒀다. 또 결국 마무리되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던 대선 공약 사항들도 일부 반영됐다.

전남도는 먼저 주요 핵심공약으로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침체된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제시했다. 또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도 담겼으며,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으로 육성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 과제를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를 상대로 대선 공약에 최종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우치공원의 봄 봄 봄 8일 광주시 북구 우치공원 산책로와 캠핑장이 주변에 만개한 벚꽃과 어우러져 동화 속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선 6월 3일 화요일 확정...잠룡들 본격 대선 행보

후보자 등록 5월 10~11일

수능 6월 모의평가 4일로 늦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3일로 예정됐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은 4일로 하루 늦춰졌다.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에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5월 10~11일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판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가,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8시까지다.

여야 잠룡의 대권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맞설 여권의 대항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르면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다음 공직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 당내 경선 캠프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 경선 과정에 호남 표심의 향방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을 총괄할 정치인 인선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지난 7일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로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김 지사 측이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도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잠정적 민주당 대권 주자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권 도전이 예상됐던 박용진 전 의원은 6일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여권에서 언급되는 잠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대권 도전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대권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헌법재판관에 '尹 측근' 이완규 지명 파장

민주당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위원직 의장 "인사청문회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이완규(64·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전격 지명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검토에 나서는 등 반발했고, 위원직 국회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대통령 임명 및 헌재 재판관 후보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 후임이다. 한 대행은 이날 자신이 임명을 미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뒤늦게 임명하고, 대법

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은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면서 "이 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재판관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행사·학교 수학여행 입찰 찜파미 의혹	▶6면
광주FC, 대구 상대로 시즌 첫 연승 도전	▶18면
엄마집의 변신 - 책방 '동명 1974'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번호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상: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